

“ 고난의 종의 호소와 우리의 응답 ”

■ 이종윤 원로목사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돌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시22:1,2) 이 말씀은 루터의 생애를 뒤집어 놓은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다. 복음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 루터에게 파헤쳐 보여 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얼굴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었고, 지금까지 무서운 심판주로만 보였던 하나님의 얼굴이 용서와 사랑의 얼굴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루터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복음으로 불붙게 했고, 그의 전생애를 복을 위해 불살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생애를 불태웠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한 가장 중요한 예언이시다. 인간의 질병의 고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형집행을 묘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을 옮긴 것이다. 십자가 형틀은 이 시를 기록한 다윗시대엔 없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당시 사람의 경험치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시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수난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른 바 까닭 없는 고난이라 해서 주님의 은고를 밤낮 탄원해 보았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철회하신 듯 일체 응답이 없으시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거절당하는 고통 이상의 처절한 고통은 없다. 그러기에 본 시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시인의 비탄으로 시작된다.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불평이라기보다 시인의 심중에 일고 있는 신앙과 실망의 교전임을 -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 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짐을 대신 지시는 심한 고통을 견디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신 끝까지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그리스도는 어둠의 시간들을 통해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고난의 종이었다.

예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 대한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와 타인의 생명만을 생각하셨다. 그래서 이 같은 생각은 그날 정오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온통 어둠으로 뒤덮였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우리 죄를 지시고 있는 동안’ 그를 보지 않기 위한 방패로 어둠을 내리셨다. 이 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때 갑자기 예수께서 소리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셨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군인들이 해면을 우슬초에 매며 예수의 입에 대어 주었다.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생각 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는 자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며” 라고 십자가로 오늘도 말을 한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난의 종으로 죽으심으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를 깨치고 승리의 부활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므로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이후,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일은 없게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의식할 경우 당신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희 죄는 내 안에서 사함 받았고 너희 고통은 지나가 버렸다” 는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시인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믿으며(3), 과거에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알며(4-5), 시인이 받는 수욕은 곧 하나님의 수욕이며(6-8), 시인은 모태로부터 주의 것으로 봉헌된 자임을 믿으며(9-10), 시인은 주님 외에는 자기를 도울 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주께서 반드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11-21)

과히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백성의 조롱감이 된 고난의 종 그리스도는 “너를 네 하나님이 구원치 않으시냐” 면서 칭 뵈음 당하시고 멸시당하셨다.“ 별레 취급당 하면서 다시 기도하신 고난의 종을 바라보자. 신앙이란 의지할 뿐 아니라 ‘말기는, 헌신하는 것’이다. 헌신 없는 신앙은 확실한 신앙이라 할 수 없다.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는 육체적 고통과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내렸다. 마침내 고난의 종은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회복한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알려지게 되었다. 예수님은 당신을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을 버리셨다. 당신이 죄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의 죄를 대신 지셨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네가 믿느냐?” 고 고난의 종된 메시아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시고 싶어 하신다. -한국장로신문 2018년 3월 31일 발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자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1,2,3부 예배는 성탄감사예배로 드리고, 찬양예배 시간에는 연말시상, 장한어머니상 수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향존직분자 은퇴식 순서가 있으며, 찬양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위한 제척회가 있습니다.

또한, 31일(토) 오후 10시30분에는 송년 음악회, 이어서 11:30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은혜의 2022년을 떠나보내고, 소망의 202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허락하실 새 한해를 소망하며 모두 함께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1225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김익환 현종필
 전도사 박미라 최중국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교육전도사 허은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토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름,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용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반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큰 기쁨의 좋은 소식 ”

■ 누가복음 2:8-19
 만삭의 몸으로 고향 베들레헴에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는 묵을 곳이 없어 마구간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리아가 해산을 했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눕였습니다. 같은 시각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수많은 천군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며 노래했습니다. 이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본문의 말씀을 성탄을 맞이한 오늘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말씀의 핵심은 ‘성령 잉태’입니다. 이 사실은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그가 하나님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으로 설명합니다. 2)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의 완전 조건을 구비하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심은 우리 죄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시려는 목적을 지닌 거룩한 희생을 전제한 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 눈부시게 작용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마1:24)고 하여 하나님께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잉태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난감했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을 결심하고 메시아 오시는 길에 자기 몸을 바쳤습니다. 이 부부는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순종과 헌신의 신앙정신을 이어가는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2.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에서 ‘복음’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1)‘복음’이라는 용어는 원래 그리스에서 전쟁용어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은 서로 열싸안고 뛰게 만들었을 겁니다. ‘살게 되었다’는 소식이며 자유가 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 탄생의 소식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큰 기쁨’이라는 수식어를 첨가했습니다. 전쟁의 승리 소식과 견줄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2)큰 기쁨인 것은 이 복음이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예수 복음입니다. 3)천사들의 찬송 소리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선물할 것이라는 찬송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주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3. 명심해야할 말씀
 목동들은 천사들이 전한 모든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나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는 말씀은 헬리어 문법으로 보면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미완료형, 분사형입니다. 마리아가 계속 이 말씀을 명심하고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생후 정결예식을 위해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노인이 아기를 안고 ‘내 눈이 주를 보았다’고 감격해 하면서 마리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34절) 마리아는 이 말씀도 가슴에 담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명심해야할 말씀도 이 말씀들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새기고 그 정신을 실천하려 노력함이 근본입니다. 우리 평생에 유념하고 실천해야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인류 역사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동수 목사	송인권 장로
II 오전 11시	장석남 목사	임상헌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사 7:14...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9(1절)...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	119(성탄절1)...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126...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 2:8-19...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성탄헌금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11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식-

오후 4시 30분 ·인도, 설교 : 조동수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눅 2:11-12	인 도 자
찬 송	24 다 함 께
기 도	이용길 집사
찬 송	122 다 함 께
성 경	창 18:1-5 인 도 자
성경통독시상	말 은 이
장한 어머니 상 시상	말 은 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식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환대를 베푸는 삶” ... 설 교 자
* 찬 송	31(46)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전재홍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박미혜 권사 II부: 한옥순 권사
성 경 왕상 13:11-3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시험을 이기는 길”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박수강 · 김복희2 · 신아령

설 교 손달익, 전재홍 목사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설 교 전재홍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소식

☛ 모 임

1. 모세 선교회 총회 / 25일(주) 오후 12시 30분 802호
2. 특별제직회 / 오늘 찬양예배 후 예·결산을 다루는 특별제직회가 열립니다.
3. 공동의회 / 다음 주일(1월1일) 찬양예배 후에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승인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 알 림

1. 101호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 10분-11시
3. 403호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6. 602호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10분 · 오후 12시 10분-오후 1시
7. 603호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8. 609호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9. 701호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0. 702호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1. 706호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권대영	1-9	바울	본인	정선미2	3-3	루디아	본인
방효정	1-9	뵤뵤	본인	윤주찬1	3-3	중등부	본인
윤영권	3-3	베드로	본인	윤주혁	3-3	초등부	본인

12. 송구영신예배, 신년감사 예배 안내 /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한 주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 12월31일(토) 오후 10시 30분 송년음악회가 열립니다.
오후 11시부터 기도로 준비하다가 11시 30분에 송구영신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 신년감사헌금도 드립니다.
신년감사 예배 : 1월1일(주) 새해 첫 주일을 신년감사예배로 드리며 주일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 장 례

1. 故 구정두 집사(5교구 구진영 집사의 부친, 한대석 집사의 장인, 윤복순 권사의 부군) / 12월20일(화) 별세, 12월22일(목) 천국환송 예배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744명	912명	2,511명	460명	1,934명

성탄 정신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 왔노라고 예수는 자기의 세상 강림을 설명해 주셨다. 그러므로 성탄 정신은 섬기는 정신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던 주님의 마음이 이 성탄 절기에 우리들에게 체현되어야 한다.

또한 성탄 정신은 희생의 정신이다.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희생의 모본이 되신다. 예수의 나심은 성자의 비하이며 격하이고 죽음이며 희생이다.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을까.

성탄 정신은 사랑의 정신이다. 성탄절에 매상고나 울리고 열락에 빠져 죄짓는 기회로만 삼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억눌림을 당하는 소외된 자의 벗이 되어 이 세상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씀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전지희	박수강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천사가 이르도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0-11)		
수요I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금주의 성구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